

한국전력인전환경빈에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이있다



1.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의 개요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은 2001년 11월부터 개발하여 시행해 온 안전관리시스템(SSM : System-etic Safety Management)의 체크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단계 Up-grade된 평가시스템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은 업무절차서, 위험성 체크리스트 및 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안전관리보고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1차 사업소 (15개 지사, 11개 전력관리처) 총 26개소의 일련의 업무가 한국전력공사 자체의 선진화 된 인트라넷인 파워넷(power.net)을 통해 보고되어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안전관리보고시스템은 현장에서 시행한 안전관리의 모든 업무가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1차 사업소 및 예하의 2차 사업소에서도 이 용하고 있었지만 참여도가 80% 미만으로, 통계로써의 정확성이 떨어 지는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의 목적

사내·외의 안전유지 에 필요한 안전경영활동에 대한 평가 시스템으로, 사업소의 자율안전 관리활동을 유도하여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활동이 되도록 동 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 새로운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안전의지를 제고시키고 안전관리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등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3. 평정사항

안전경영평가시스템 평정점수는 제도적 안전관리에 10점, 예방안전관리활동에 30점, 교육훈련·안전홍보에 30점, 현장안전관리에 30점 등 총 100점을 부여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는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내용은 제도적 안전관리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5개 항목을 비롯해 예방안전관리활동에 3개항목, 교육훈련·안 전홍보에 3개 항목, 현장안전관리에 2개 항목 등 총 4개 분야, 13개 항 목으로 안전관리활동을 평정한다.

4. 평정시기 및 방법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은 사업장 및

지난 40년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6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전력회사로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안전환경기반이 되고 있는 안전관리시스템(SSM)이 있다.

전사의 안전척도를 백분율로 환산하고 안전경영활동율로 분석하여 파워넷상에 공지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 영역별로 관련 시스템과 링크되어 평가되고 있지만, 특정시기에 입력되어야 할 안전관리 활동 사항은 14개의 타임 테이블을 통해 입력기한내에 입력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잠정평정은 매년 10월말로 하고 있고, 최종평정은 12월 20일에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평정시기별과 평정방법별로 구분되며, 평정시기별에는 사전평가, 진단점검, 실적평가가 있고, 평정방법별에는 현장점검, 자료제출, 자체평가에 의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5. 평가결과 조치 사항 평가결과는 항상 파워넷상에 공지하여 경영진 및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시로 각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관리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은 2004년에 개발되어 12개 1차 사업소에서 시범운영되었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5년에는 26개 전체 1차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평가 점수는 파워넷에 공개되고, 보고시스템과 링크되어 실시간으로 평가 점수가 웹상으로 공개되고 있다. 안전경영평가시스템에서는 현재 각 사업장의 안전율 및 미진한 부분의 안전관리 활동 사항이 파악 가능하여 신속한 수정과 조치로 안전관리수준의 향상 및 안전한 한국전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처럼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은 파워넷 및 관련 시스템의 효과적 이용과 사업소별 경쟁을 유도하여 한국전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올바른 직장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6. 맺음말 한국전력에서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다. 안전관리시스템(SSM) 및 안전경영평가시스템의 개발·운영으로 안전사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하였고, 전 사업장의 90% 이상이 자율적인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감소와 안전관리시스템(SSM)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다.

올해 2006년에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안전관리시스템(SSM)은 안전경영평가시스템 운영으로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하고, 2005년 12월 재난관리분야의 재난대응관리시스템 개발로 한국전력의 제 4회 경영혁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재난대응관리시스템을 전사업소에서 활용하여 안전관리는 물론 재난관리에서도 완벽을 추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종덕 기자)